

서울지역 학교

1	<p>행당중학교 (서울 성동구)</p>	<p>새 교장이 매일 아침 순회를 돌며 욕설. 5월 중순 경 “두발자유”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교장이 불러서 혼내고 손으로 체벌. 교장은 체벌 기본이 8대. 학생이 컴퓨터를 켜다가 도망가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욕설과 함께 싸대기를 6~7대 정도를 때림.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신체를 직접 이용한 체벌. 학교가 끝나도 교문 앞에 지키고 서서무조건 3시 10분까지 학생들을 못 나가게 함.</p>
2	<p>연천중학교 (서울 은평구)</p>	<p>두발규정 묶어서 20cm. 손톱도 단속해서 무자비하게 처벌. 체벌이 심함. “아숨”(아름다운숨씨)이라는 별명의 미술교사가 단속을 해서 껌떼기, 화장실청소, 복도청소 등을 최소한 1시간 이상 시킴.</p>
3	<p>양동중학교 (서울 양천구)</p>	<p>학내시위가 있을 이후 교사들은 학생들 움직임을 무마시키려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였으나 공청회를 열지는 않음. 교문 앞에서 두발단속하여 걸리면 오리걸음 한 바퀴. 2006년 6월 27일 체육교사가 아침에 강제이발.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수업을 못 받게 하고 머리를 자르게 하고 온 경우도 있음. 학교홈페이지에 두발자유 문제로 글을 올린 학생을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 앞에서 학생부 교사가 부르고 “사악하다.”라는 표현, 그 외 부모 비하 등 여러 욕설. 교감이 그 자리에서 교무실로 좀 오라고 했으나 학생이 거부하자 학생부 교사와 교감이 심한 욕설. “야 이새X야. 선생님이 불러서 내려가는 건 무조건 내려가야되는 의무야 새X야. 넌 권리만 있는지 알지 ? 야 이 새X야. 이권 권리가 아니라 의무야 새X야!” 등등. 2006년 9월 학생들의 요청을 받은 청소년인권단체의 ‘스쿨어택’ 등으로 압력을 받아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진행 중.</p>
4	<p>오주중학교 (서울 송파구)</p>	<p>체육교사가 매시간 두발단속. 수업시작하고 체조 끝나면 "두발불량 나와." 나무 몽둥이로 여러 번 돌아가면서 체벌하다가 부러지면 교체. 요샌 플라스틱 파이프로 체벌. 강도는 1대 강하게. 교사 기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데, 기분 나쁠 때는 빨강계 명이 듬.</p>
5	<p>옥정중학교 (서울 성동구)</p>	<p>1 전교 어린이회에서 두발자유를 요구했으나 교사들이 강압하여 다소 완화되는 정도에 그침.규정은 구레나룻은 귓불까지, 뒷머리는 교복 와이셔츠가 안 닿는 것이나 소위 귀두컷이 아닌 이상 가차 없이 밀고 있음. 생활지도부 집중 단속기간에 가위로 구레나룻 강제이발당한 사람이 많음. 2 설문조사를 강제로 시키고 그것을 명분으로 강제이발함. 3 두발단속에 걸리면 체벌, 부모에게 연락, 강제이발. 2006년 6월 13일에도 실제로 강제이발 당함. 구레나룻과 뒷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짧게 잘라버림. 제보자는 머리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싫고, 학생주임 선생님과 생활지도부 선생님들만 보면 피해 다니다보니 순간 친구와 마주치거나 학생주임 선생님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분만 봐도 흠칫 흠칫 놀래곤 한다고 호소.</p>
6	<p>구암중학교 (서울 관악구)</p>	<p>“두발자유” 배지 달고 다닌다고 4월 10일쯤에 여학생이 학생부에 불려가서 맞았음. 세계 한 대. 지나가다가 애들이 배지 달고 있는 거 보면 압수. 배지 때문에 음악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말 듣기도 함.</p>

9	영서중학교 (서울 구로구)	교사가 “두발자유” 배지를 달고 다니는 학생을 흥분해서 교문에서부터 끌고 다니며 쓰레받기와 소화기 등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함. 당한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카운슬링 받고 있음.
10	양화중학교 (서울 영등포구)	학생주임이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이 씨벌놈들!! 머리짜르라니깐 말도 존나게 안들어 씨벌놈들!!"이라고 욕설하며 가위로 학생회장 머리부터 구레나룻을 잘라버림. 교실 사이를 오가며 머리 한 번씩 잡아보다가 맘에 안 들면 바로 강제이발. 남학생들 구레나룻과 뒷머리가 주로 잘림. 학생주임은 항상 "씨벌놈아"를 입에다가 달고 살며 수업시간에 학생회장(남성)에게 "저새끼 불알을 잘라다가 불에 구워서 소스발라 먹어야지"라고 함. 여학생들에게도 개년, 씨벌년 등 욕설을 항상 하고, 문제아들은 말을 안듣네, 개 같네, 옛 같네, 라고 욕설. 학생주임은 체벌을 여학생들 귀싸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남학생들에게 ‘니킵’을 하기도 함. 하복 입을 때 춘추복 입었다고 귀싸대기 때렸음. 매 없이 손발로 주로 머리를 때림. 음악교사는 절들라고 하면서 상습적으로 체벌. 장구채로 등짝을 때리거나 싸대기를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학생의 정수리를 때린 일이 있음. 어떤 1학년 남학생이 지각을 했는데 머리가 좀 긴 것을 보고 음악선생이 자르라고 했으나, 남학생이 자르기 싫다고 하자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다가 확 내팽개침.
11	목일중학교 (서울 양천구)	규정상으로는 두발길이가 자유지만, 학생부의 2학년 담당인 교사가 머리 잘라오라 하면서 나무몽둥이(두께한8cm) 동그란 걸로 학생을 체벌하며 머리 안 잘라오면 경범죄로 신고해버리겠다고 협박함.
12	신동중학교 (서울 양천구)	축구부가 2006년 8월 29일 아침에 연습을 하던 중, 교감이 축구부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더니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을 데려왔음. 생활지도부장은 24명을 모두 2층 교무실로 데려가서 머리길이를 이유로 두발규정에 걸리지 않는 학생도 별점을 주고, 당구채 뒤쪽보다 약간 긴 특수제작 매로 체벌. 체벌을 당하느라 수업시간에는 늦었고 머리를 자르라는 협박을 들었음. 그리고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축구부 아침모임 금지. 평소에도 학주가 가위로 남학생들 머리를 자르고 싸대기를 때림. 작년에 두발자유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자 학교측에서 “학생과의 협의에 의해 두발규제의 정도를 정하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나 학생들이 완전자유를 요구하자 이를 묵살하였고, 대의원 회의에서 뒷머리 15cm, 윗머리 무제한, 앞머리 눈썹까지의 협의안을 내놓았으나, 잠깐 규제 완화되었다가 생활지도부장 바뀌고 나서 다시 윗머리 7cm, 뒷머리 2cm로 일방적으로 바뀜.
13	은곡공업고등학교 (서울 노원구)	두발규제 심함. 규정에 있는 머리보다 짧아도 교사 눈에 머리가 길다고 생각되면 잘라오라고 하고 체벌함. 주로 체육교사가 손으로 싸대기 때림. 내일까지 잘라오라고 하면서 여러 대. 한 반 2명이 1주일동안 하는 주번은 40분 먼저 학교 등교해서 학교 청소. 만약 지각하면 몽둥이로 60대 체벌. 8시 전엔 학생부장이 교문을 지키고 있는데. 눈에 띄면 일단 맞고 지각해서 또 60대 맞고 주번 된 일주일엔 맞으면서 살아야 함.
14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서울 노원구)	사립이라는 핑계로 두발규제 완화요구를 묵살. 작년 두발규제완화를 위해 학부모까지 전부 소환해서 회의를 가졌지만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 완화가 됐다곤 하지만 뒷머리 1cm였던 것이 3cm로 바뀌었을 뿐. 귀 덮으면 안 되고 앞머리는 7센치. 게다가 2005년 말 학생부 박한구 교사가 바리깡 들고 교실 돌며 머리 긴 학생들 강제이발.

15	서울동성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오병헌 씨의 1인시위 이후 상황만 답음.) 쉬는시간에 학생들 가둬두곤 교실 돌면서 두발단속. 직업반의 경우 강제이발 행해짐. 2006년 9월 1학년들에게 강제이발 있었음. 학생회장 선거에 내신50% 제한. 강제로 보충수업하는 반이 있음. 징계를 받게 될 때에 학생이 변론할 기회가 교칙에서는 보장되지 않음. 징계위원회에서 사용되는 경우서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강제작성됨.
16	성보고등학교 (서울 관악구)	두발 규정 옆머리는 귀밑1cm, 뒷머리는 카라 밑 1cm. 음악교사가 길다고 하면서 무조건 스포츠형의 머리를 강요. 머리가 길면 체벌하거나 음악실기점수를 깎음. 학생회에서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음.
17	용산고등학교 (서울 용산구)	두발규정은 거의 반삭인데 앞머리만 좀 길게 되어 있음. 교문 앞에서 두발단속 및 용의복장 검사해서 기합과 체벌이 심함. 교문에서 가방이 가벼워보이거나 책이 3권 이하 들어있는 듯하면 가방열고 소지품 검사.
18	경희고등학교 (서울 동대문구)	보충수업은 선택이지만, 야간자율학습은 강제로 시킴. 2006년 9월 15일날, 야간자율학습 도망간 사람들을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꿇고 의자 들게 한 뒤 허벅지를 3대씩 때렸고, 그 상태로 수업을 듣게 했음. 9월 19일 두발단속 돌면서, 뒷머리 끝선이 손에 잡히거나 옆머리가 보이는 학생들은 야구방망이로 맞음.
19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반 분위기도 군대식이고, 목하고 가슴 사이에 뼈를 주먹으로 체벌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회초리로 재미로 거의 때리는 선생님도 있는데 전학을 안 보내줌.
20	서울시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라고 밝힌 사람의 제보	학생부가 불러서 "~~~~ 을 안할시 학교에서 어떠한 체벌을 해도 달게 받겠음."이란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압. 학생주임이 2006년 5월 29일까지 머리를 깎고 오겠다고 쓰라고 강요. 학생주임이 안 잘라오면 자기가 자르겠다고 이야기함.
21	대원고등학교 (서울 광진구)	두발규제가 상당히 심함. 야자는 고3은 강제로 시킴. 8월 23일 수요일, 고3 학생 하나가 몸이 평소부터 약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 담임을 찾아가 조퇴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담임은 이미 퇴근했고, 야자 감독 교사는 그 학생이 피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보내주지 않았음. 그런데 집에 와서 그 학생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24일 아침) 사망. 학교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은폐를 하려는 듯, 상을 하루만에 끝냈고, 야자감독 교사는 "보내줬는데 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며, 교감은 "상은 하루로 끝내기로 한 것이 맞냐."라고 학생 집에 확인.

경기도지역

1	수원 여러 학교에 대해 한 사람이 한 번에 제보한 것	<p>수원효원고등학교, 수원화홍고등학교, 수원권선고등학교 모두 강제로 야간자율학습. 두발규제도 있음. 다른 수원시 소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예체능계 학생 아니면 강제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듣게 함. 3학년의 경우는 일요일까지 강제등교. 화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자율학습 동의서를 아예 안 받음.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형식적인 동의서에 강압적으로 동그라미 치게 함. 화홍고를 포함해서 보충수업의 경우도 강제로 동의서 받음. 효원고와 권선고는 1학년부터 화홍고는 2학년부터 토요일에 오후 자율학습. 이 세 개의 학교를 제외한 수원시에 있는 학교들도 거의 다 이와 비슷하게 강제로 야자하고 보충수업하고 두발규제를 함.</p> <p>대부분의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이 강제로 야자하고 0교시하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서만 없앨 수 없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 제보자는 7시30분부터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이상을 학교에서 보내고 다시 학원가고 그러면 정말 집에서는 밥 한 끼 먹기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p>
2	장안고등학교 (수원 장안구)	<p>두발규정은 반삭발에 올려치기 정도. 걸리면 엉덩이 체벌. 발목 양말을 못 신으며 밝은색(흰색, 빨간색)신발이나 가방 착용 금지. 교복 안에 흰색 아닌 다른 색(검정색 회색 전부) 못 입게 함.</p> <p>체벌은 학생부장이 어떤 여학생 싸대기를 심하게 때림. 거의 엉덩이를 때림. 국어교사는 종아리를 때림. 김보현 교사는 엉덩이나 발바닥을 때리고 심할 땐 앞머리 잡고 흔들다가 머리도 때림. 싸대기도 때림. 매로 싸대기를 때리는 경우도 있음. 매는 두께 1cm 조금 안되고 폭이 3cm 정도 길이는 35cm정도 되는 걸로 때림. 김보현 교사는 2006년 6월 6일인가 7일에 제보자를 명찰 ‘찍찍이’로 달았다고 엉덩이를 때림. 제보자가 이게 왜 안 되냐고 물어보자 머리를 때리며 “그럼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말함.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기에 제보자가 “교칙에 안 써있어서”라고 답하자 “교칙에 결혼하지 말라고 써있으면 안 할거냐.”라면서 싸대기를 때림. 교감이 지나가자 손을 내렸다가 다 지나가고 나자 다시 때리며 20분 정도 혼남. 명찰 때문에만 대략 6~7대 싸대기 맞고 머리 3 대정도 맞음. 애들한테 개새끼라고 종종 욕설.</p> <p>편희철 교사는 매로 엉덩이를 심하게 때림. 아침 교문단속에 걸리면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거나 쓰레기 주워오게 함.</p> <p>야간자율학습 희망조사하는 것을 다 찬성으로 써내라고 했으며, 몇몇 반은 그렇게 안하면 때리겠다는 식으로 했음.</p> <p>학교 교칙에 두발자유 선택하면 퇴학시킨다는 조항이 있음.</p>
3	동원고등학교 (수원 장안구)	<p>뒷머리 구레나룻은 무조건 속살이 보여야 하고 윗머리 2cm 두발규정.</p>
4	숙지고등학교 (수원 장안구)	<p>수행평가를 하려고 아침 일찍 등교했는데 때마침 “학생복지부” 담당선생님(별명 바바리)이 와서 몇 명 호명하여 두발단속. “학생은 머리를 기르면 안 되며 머리가 짧아도 충분히 멋을 부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혼낸 뒤 다음날까지 머리 깎고 오도록 함. 깎고 오지 않으면 매타작함.</p>
5	청명고등학교 (수원 영통구)	<p>1학기 때 수업시간에 교사가 머리 길어보이면 두발규정 상관없이 체벌. 강제이발도 있었음. 2학기가 되자 두발규제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불만이 높아져서 교실 불을 켜다 켜다 하고 종이비행기를 던지고 운동장에 나가는 등 시위를 함. 다음주에 2차 시위를 준비했는데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소지품검사를 해서 전단지 갖고 있던 주동자를 잡아내고, 선생님들이 지키고 서 있으며 시위를 막음.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문자 등을 모두 검사함.</p>

6	동우여자고등학교 (수원 장안구)	두발규정은 귀밑 20cm. 8월11일 한 학생이 어깨에 닿지 않는 단발이었으나 머리를 풀고 다녔기 때문에 교사에게 계단에서 걸림. 교사가 복도에서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5대를 체벌했고, 교무실로 데려가서 추가로 체벌. 말로도 상처를 줌.
7	태원고등학교 (성남 분당구)	2006년 6월 26일 월요일 두발단속.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눈썹 위 옆머리는 귓구멍을 넘어선 안 되고 뒷머리는 1cm. 두발검사를 하는 날에는 아침등교시간에 1, 2, 3학년 건물 문을 봉쇄하고 각 학년 건물 앞에 해당 학년 학생들을 세워놓음. 교사들은 학년마다 5~10명이 가위를 들고 있음. 머리가 조금만 길어 보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자름. 이번 두발검사 때는 바리깡도 다시 사용. 여학생은 검사를 잘 안 하는 편. 학생들이 두발에 대해 언급하면 체벌.
8	강서고등학교 (안산)	교사에게 가위로 강제이발. 한 반 학생 중 10~20명이 가위로 잘림. 옆반은 바리깡이었다고 함. 2006년 6월4일(또는 5일) 경에 두발검사. 두발검사 2번 이상 걸리면 군대식 PT체조 등으로 처벌.
9	단원고등학교 (안산)	1 2006년 5월 13일~14일 쯤 학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두발관련 글을 올려서 조회수1800에 댓글도 150이상 달렸는데, 5월 18일 저녁 때 교감실로 호출받음. 내용에 욕도 없고 자기 생각을 적었으나 교감이 우리학교는 두발자유 생각도 안했고 계획도 없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전학가라는 식으로 호통침. 강제전학 위협. 당장 삭제 명령.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학교 측에서 글 삭제해버림. 2 2006년 5월 29일 학교 조회시간에 두발 교복 등등을 단속했음. 규정이 귀두컷, 해군머리 정도. 가위로 강제이발하고 머리 길다고 ‘엎드려뺨쳐’를 수업시간에 시켜서 수업을 못 듣게 함. (안산에서 단원고가 안산공고 다음으로 짧다고 함.) 제보자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주장.
10	송운중학교 (시흥)	“두발자유” 등이 적힌 배지를 학생들이 달고 다니자 1학년 3반 담임 좌효숙 교사는 배지를 압수함. 벌점을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혼냄. 배지 가져온 학생에게 “선동했다.”라고 몰아세움.
11	문원중학교 (과천)	구레나룻 잡히면 바로 머리포기각서 쓰고 바리깡으로 강제이발. 각서를 안 쓰면 ‘면벽’. 면벽은 강도 높은 체벌임. 앞머리 3cm 뒷머리는 손가락이 목과 뒷머리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됨.
12	평택중학교 (평택)	3학년 부장이 두발단속하는데 수위가 너무 심함. 게다가 규칙보다 짧게 규제. 규칙은 앞머린 눈썹을 안 가리고 옆머린 귀를 안 덮고 뒷머린 옷깃에 안닿는 것이나 귀두컷이나 반삭발 요구. 귀두컷에서 약간 긴 머리를 한 애들,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자른 애들, 거의 2cm도 안 되어보이는 윗머리와 1cm도 안 되어보이는 뒷머리를 가진 학생들도 모두 걸림. “이번에도 안 자르면 손 땁니다.”라고 말함. 체벌로 뺨을 때림.
13	태광중학교 (평택)	머리카락 기준은 앞머리 눈썹 옆머리 귀밑 제보자가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있어 두발단속을 거부하고 맞아가면서도 귀를 덮을 때까지 두자 담임교사가 욕을 하면서 자르지 않으면 바리깡으로 밀겠다고 함. 용의복장 검사할 때 손톱 머리 벨트 등을 검사하는데 걸린 사람은 나오라고 해서 하키채나 삽으로 때림.

인천지역 학교

1	<p>인천남중학교 (인천 남구)</p>	<p>1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마다 학생과에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음. 학생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불렀는데 안 가다가 갔더니 복도에 머리를 박으라고 한 후 그 상태로 몽둥이로 체벌함. 학생과 옆에 빈 미술실이 있는데 거기로 끌고 간 다음에 손바닥을 한 쪽당 40대씩 맞았음. 5대만 맞아도 손이 시퍼렇게 멍이 듦. 등교 정지라며 겁을 주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도 때림. 머리 규정이 처음 들어왔을 땐 뒷머리 카라 안 닿고 귀 안 닿고 앞머리 눈썹 위였는데 완화해준다고 회의 해놓고선 긴 스포츠로 바꾸곤 완화되었다고 함. 더 이상 맞는 게 두려워서 학교가기 싫은 게 이제 지겹다고 호소</p> <p>2 규정이 뒷머리 카라 안 닿고 옆머리는 귀 안 덮고 앞머리는 눈썹 위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학생과 안효삼 선생님이 그냥 자신이 볼때에 이 학생이 머리가 길다 하면 그냥 잡아다가 매질하고 머리를 스포츠로 깎아오라고 명령. 어길 시에는 미술실에 끌려가서 양손을 미친 듯이 두들겨 꽤 피멍이 들게 만든 후 옆드리게 해서 엉덩이를 또다시 팸. 학생이 두발 때문에 발길 걷어차인 적도 있음. 학생 중에는 심하게 얻어맞아서 스트레스로 인해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까지 간 적이 있으나, 은폐되었음.</p> <p>3 학생부장 안효삼 선생님이 심하게 때리고 이중기 선생님이라고 체육선생님인데 때리고 벌 세움. 학생들이 체육 나가기 정말 싫어함.</p> <p>4 안효삼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머리 규정이 뒷머리 카라 안 닿으면 되고 옆머리 귀 안 넘으면 뒤통에도 머리가 스포츠가 아니다싶으면 그냥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몽둥이로 엉덩이, 손바닥을 때림. 특히 주먹으로 2대만 맞아도 광대뼈 쪽이 붓고 상처가 남. 손바닥은 5대만 맞아도 피멍이 드는데 자기 맘에 안 들거나 길다 싶으면 손바닥 40대씩 때립니다 사람을 개 패듯이 막 때리고 온갖 협박에 욕설 정말 싫다고 함.</p>
2	<p>송도고등학교 (인천 연수구)</p>	<p>2005년 5월 말쯤 두발자유운동 분위기가 좀 사그라드는 듯하자 두발단속하여 3학년만 200명 이상 걸림. 7월 4일 월요일 담임교사가 아침에 머리 긴 학생들을 잡아서 학생부에 데려가서 가위로 머리를 심하게 자름. 7월 4일 7교시. 담임교사가 가위 들고 교실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혀둔 채 학생들 강제이발. 강제이발한 뒤 내일까지 잘라오지 않으면 바리깡으로 강제이발하겠다고 함. 담임교사가 학생을 보면서 잘린 머리카락을 집어 들고 얼굴에 던지며, “훗, 잘린 머리카락에 뭐 그리 연연하나.”라고 비웃음. 2005년 2학기에는, 체육교사가 머리가 너무 길다는 이유로 싸대기를 때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3	도림고등학교 (인천 남동구)	<p>규정에 맞게 머리를 잘라와도 “야비하게 짜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체벌. 거의 반삭발 요구. 머리가 단속에 걸리면 수업 끝나고 8교시 때 ‘뽕뽕이’라는 기합을 1시간내내 시킴. 여기에서 뒤처지는 학생은 즉시 체육담당 김성영 교사가 몽둥이로 체벌하며 욕설. 네이버 지식인에 도림고 체육교사나 체벌에 대한 답을 달았더니 학교 조회시간에 전체 학생에게 일주일 안에 안지우면 징계시킨다고 사실도 아닌 글을 올린다고 욕설함.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교칙에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선생님들 비방하거나 학교 명예를 낮추는 일이 있을 시에 퇴학이라는 규정이 생김. 제보자와 제보자 친구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두발에 대한 글을 썼는데 교사들이 불러서 삭제 명령.</p> <p>체벌 강도는, 2005년까지만 해도 맞아서 피부가 멍들다 못해 까매져서 너털너털할 정도 까지 체벌. 체벌방식은 일단 몽둥이는 여러 가지를 사용. 심하면 20대 정도 맞는데 그렇게 맞으면 피부가 까맣게 됨. 전교생이 거의 다 한 번 이상은 싸대기를 맞음. 버스 사정으로 100명 정도가 지각했는데 한 학생이 버스가 연속으로 와서 지각했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돼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1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발로 차고 싸대기를 때림. 학부모회의 이후로 비판받았는지 2006년 6월 들어서는 조금 덜하긴 하나, 언제 다시 그렇게 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낌.</p>
---	--------------------	---

대전지역 학교

1	<p>대성고등학교 (대전 중구)</p>	<p>지각하면 오리걸음 30분. 실내화가방도 안 들고 다녀도 8시까지 오리걸음. 1학년 별관 입구에서 생활검열을 하는 분은 1학년 부장이신 음악교사와 학생부의 미술교사. 체벌은 '단무지'라는 노란색 봉. 폴스윙 강도로 학생부 교사는 기본 5대. 엉덩이, 아니면 간혹 무릎 꿇린 채로 허벅지. '개기지 못하게' 마구 때리기 때문에 엉덩이 맞으면 피멍. 하루에도 15시간을 넘게 앉아 있어야 함. 보충 같은 경우는 가정통신문도 아닌 설문지형식으로 O X 체크하도록 해놓고 X인 학생 교무실에서 지도, O로 바꾸게 함. 보충반이 정해진 후에 강의 교사 선택 및 부모님 동의서 배부하여 사후 위조 강요. 야자는 11시 10분까지 강제. 9시 10분까지는 전원 강제고 9시 10분부터 학원 가는 학생만 빠짐. 야자는 반에서 1명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조퇴형식으로 가끔 빠질 수 있는데 부모의 연락이 없이는 빠질 수 없음. 야자 종치기 1분 전에 한 명이 가방 싸다가 걸려서 열댓명이 20대 체벌. 학급 반장 부반장은 성적에 상관없이 뽑지만 학생 간부는 성적순으로 뽑힘. 1, 2, 3학년 반장 부반장들과 학생부장이 학생회의를 했는데 학생부장이 거의 주도하여 학생들 의견 무시하고 교장에게는 학생부장 의견을 제출. 교장은 두발자유를 지지하고 있으나 교감과 학생부장이 학생들과 학부모의견을 두발규제 찬성으로 전달함. 제주도 수학여행 갈 때 사고 안 나게 군기를 잡겠다면서 가기 전에 머리 짹짹 깎도록 지시. 안 깎아오면 체벌. 2006년 9월 15일, 학생 두 명이 가방을 갖고 놀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렸음. 1학년 화학선생님이 던진 학생을 찾았는데 안 나오자 잠시 후 그 학생들을 색출해냈음. 두 학생에게 체벌을 했는데, 한 학생이 아픈 기색을 잘 안 보이자 총 80여대를 때리고서 원래 20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더 때렸다고 말함. 그 학생 엉덩이가 흐물흐물해지고 완전 까망색으로 변해버려서 체벌한 교사와 함께 병원에 감.</p>
2	<p>대전동아공업고등학교 (대전 동구)</p>	<p>두발규제는 상고형 머리로 옆머리와 뒷머리를 1/3이상 기계로 바짝 잘라야 함. 매월 초 검사. 수업시간 도중에 학생부 선생님들 3명이 들어와 한 명은 검사 한 명은 이름과 별점체크 한 명은 공업용플라스틱 파이프로 3대씩 종아리를 체벌. 별점 체크 후 다음날 머리를 깎고 학생부에 8시 30분까지 집합하여 머리검사 후 통과하지 못할 경우나 검사에 불응할 경우 징계. 반삭발 형태인 경우는 반항의 의미로 간주하며 가방을 뒤져 모자와 가발이 있는지를 확인, 모자와 가발 압수.</p>
3	<p>대전중앙고등학교 (대전 중구)</p>	<p>두발검사는 학생부장과 그 외 학생부 교사 몇 명이 함. 학생부장은 수업시간에도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하고 휴대폰을 받으며 수업을 종종 빼먹음. 검사할 때 머리를 잡아 당기며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방망이로 체벌. 두발검사 당일 그 다음날, 매일 단속기준이 바뀜.</p>
4	<p>대전고등학교 (대전 중구)</p>	<p>두발단속이 매우 심함. 바리깡으로 하얗게 치라고 지시함. 따지면 무조건 학생부 끌려감. 두발단속이 싫으면 대전고를 떠나라고 이야기. 싸대기도 때림.</p>
5	<p>대덕고등학교 (대전 유성구)</p>	<p>학생을 때리면서 머리를 강제적으로 자르게 함.</p>
6	<p>둔원고등학교 (대전 서구)</p>	<p>고데기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그렇게 할 거면 술집이나 가라.”라고 욕설. 양말색깔이랑 발목양말 검사도 함.</p>
7	<p>송강중학교 (대전 유성구)</p>	<p>머리가 길다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겨서 머리를 뽑아버렸음.</p>
8	<p>문화여자중학교 (대전 중구)</p>	<p>학생주임 교사가 뒷머리를 강제이발함.</p>



8	용운중학교 (대전 동구)	원래 학교 규정은 10cm인데 교사 한 명이 귀밑 4cm로 단속. 머리 안 자르면 당구채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림.
9	충남여자중학교 (대전 중구)	머리가 길면 복도에 엎드려 뺨쳐 시킨 다음 마구 때림. 머리 풀고 다니면 교무실로 끌고 가서 강제로 머리를 자름.
10	대전내동중학교 (대전 서구)	원래 귀밑 5cm인데 3cm도 생각하지 말라면서 맨날 2cm로 자르고 오라고 함. 안 자르면 기합 받고 자르게 함.
11	대전중리중학교 (대전 대덕구)	머리가 길면 “죽일 년”이라고 욕함. 교문 앞, 교실에서 두발단속하는데 자를 때까지 계속 교무실 불러내며 봉사활동.
12	대전천동초등학교 (대전 동구)	예의 없게 했다고 선생님이 따귀 때렸다.

충청지역 학교

1	경덕중학교 (청주 흥덕구)	<p>교사들이 “너희들 머리 때문에 때리면 신고할 거지. 그러니까 안 때릴 거야. 대신 머리 안 자르면 기합을 주고 남길 테야.”라고 말함. 학생부에서 2005년 방학 전후쯤 머리 긴 학생들 4시30분까지 남게 함. 일주일이 지나고 안 깎는 학생들은 25명 정도(여자 7명, 나머지 남자)인데, 여자들은 어깨동무하고 동그랗게 모여 있게 하고 남자들은 엎드려뺨쳐해서 있다가 오리걸음 2바퀴 반.</p> <p>학생부 이창우 교사는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계단에서 머리 안 잘랐다고 싸대가 때림. 지나갈 때 불러서 “니가 대학생이냐 머리가 뭐 그렇게 길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위 들고 잘라버린다고 하고 4월달 쯤에 검사해서 걸린 학생 4시30분까지 또 남겼음.</p> <p>국사를 맡고 있는 장경환 교사는 학생부장으로, 국사시간마다 머리 안 자른 사람들 종아리 맞음. 김현진 선생님은 신고학생의 담임인데 방과후 불러서 두발 문제로 지도, 4시30분까지 일주일정도 계속 언쟁. 학교에서 머리 안 자르면 이제는 5시까지 남기겠다고 함. 손톱 검사나 배꼽 검사하는 학급도 있음.</p> <p>저번 학생회의에서 귀밑 2cm 뒷머리는 카라 밑 2cm로 주장하여 학생들이 찬성했으나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몇 주 뒤 하던 대로 두발단속. 작년에도 학생회에서 두발자유 전원 찬성했으나 학교는 무시.</p> <p>어깨에 걸치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토트백을 여름에 더워서 등에 땀이 많이 나서, 하나 장만해서 들고 갔더니 한 번만 더 가져오면 압수하겠다고 했음.</p>
2	진천중학교 (진천)	<p>2006년 6월 7일 두발단속. 두발단속에 걸리면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함. 조회시간에 걸리면 조회대 앞으로 불려가서 망신을 주고, 교실 안에서 걸리면 머리를 붙잡고 때리면서 “너 이거 멋부리려고 기른 거지.”라고 말함. 머리를 깎지 않은 학생은 체벌. 여러 번 걸리면 학생과에 넘겨서 체벌.</p>
3	청석고등학교 (청주 상당구)	<p>두발단속 기준이란 것은 오직 학주 눈에 이쁘냐 안 이쁘냐이며, 일명 뽀뽀이 학교로 불림.</p> <p>보충수업은 350명 모두 강제.</p> <p>두발단속 같은 거 걸리면 청석인 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뽀뽀 몇 대 맞고 몽둥이로 맞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말이나 노는 휴일에 근처 산으로 데려가서 기합을 줌. 등산 어찌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합임.</p>

대구지역 학교

1	화원중학교 (대구 달성군)	<p>거의 몇 주 또는 몇 달 주기로 전교를 돌면서 두발규정에 어긋나는 두발상태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하러 다님. 간혹 몇 학생 중에는 비인간적으로 맞아서 남학생이 우는 경우도 있었으며 체육실로 끌려가는 학생도 있었음. 더욱이 여기서 걸려서 3번 이상 걸릴 경우교내외 상장을 타지 못하게 하고 있음.</p> <p>학생들의 두발규제 완화에 대한 글이 학교홈피에 올라오자 아침에 대의원 전원을 소집. 대의원 집결 시 대부분의 교장급 교사와 학생부 교사들이 앞 뒤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학생주임(부장 아님)이 학생들에게 두발규제 얘기 또 한번 나오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폐쇄시킬 것이며 공청회 열어서 2cm로 줄여 버리겠다고 협박. 학부모, 교사 대표 총 20명이 너네랑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 하면서 학생들의 발언의 자유 자체를 영구적으로 침해하려는 태도로 학생들을 협박함. 교장은 학부모 1200여 명에게 전부 찬성 의사를 받지 않으면 두발자유해줄 생각 전혀 없다면서 학생부 교사들이 앞뒤로 지켜 공포분위기 조성한 가운데 대체 뭐가 불편하냐고 대의원들에게 질문함.</p> <p>학생부에 걸린 학생 중에 학생주임에게 걸린 학생 중 일부는 체벌규정(약 8대 정도)에 맞추어 체벌을 당했음에도 엉덩이에 피멍이 났다고 함. 그 중에 반도 못 맞아서 피멍이 났다고 전해들었음. 싸워서 봉사활동하는 여학생을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는 정문 앞에서 비인간적에 가까울 정도로 강도를 높여 체벌 규정 한계까지 체벌을 줌. 체벌보다는 구타에 가까운 체벌이었음. 체벌 규정에 맞추어 체벌하더라도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말보다 체벌을 먼저 가한다고 학생들은 느끼고 있음.</p>
2	동평중학교 (대구 북구)	<p>도덕 교사가 6월 19일부터 두발 걸리면 가위 가져와서 머리 깎아버리겠다고 하더니 7월 6일에 가위를 들고 와서 애들 머리를 길어보이면 다 때리고 잘랐음. 옆머리를 그렇게 자르더니 뒷머리도 잘라오라고 하고 안 잘라오면 자기가 강제이발하겠다고 함. 결국 7월 10일에 뒷머리도 선생님이 가위로 잘라버렸음. 7월 12일에는 10대를 때렸고, 그 다음날에는 20대. 도덕교사가 수업시간에 두발단속하여 쇠막대기로 엉덩이 체벌.</p> <p>체육 교사가 자주 체벌. 한 학생이 항의하자 체육 교사가 목을 3번 때림. 공 깔고 앉았다고 학생들 배를 손으로 때림. 욕설 자주 함. 1학년 등교시간 7시 40분 스포츠머리가 긴 편이고 거의 삭발.</p>
3	영남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p>매일 아침마다 현관 앞에 선생들이 5~6명씩 서 있으면서 머리 긴 애들 잡아다가 군사훈련을 연상시키는 체벌을 행함. 기합도 심함. 평소에도 야자 시간에 학생들을 복도로 끌고 와서 체벌하고, 그 시간에 학교 밖에 나가서 머리 깎아오라고 함.</p>
4	성광중학교 (대구 북구)	<p>두발규정은 짧은 스포츠. 규정은 앞머리 5cm(작년에 3cm, 옆뒷머리 깨끗이)지만, 현실상황에서는 옆뒷머리 0.2cm만 나와도 바로 가위질, 윗머리 3cm이상가면 바로 가위질 등 참혹함. 2주일에 한 번씩 머리 깎으라고 하며, 옆 뒷머리는 일주일에 한번 깎도록 함. 안 잘라오면 죽인다고 하며, 안 자르고 버티자 엄청 체벌. 특기적성 수업 한 달에 24000원 내며 강제로 듣게 해서, 수요일은 그거 때문에 8교시까지 함. 방학 때도 학교에 나오게 해서 EBS 방송청취를 강제로 시킴.</p>
5	경혜여자중학교 (대구 남구)	<p>휴대폰을 압수했는데 나중에 찾으러 가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함. 그런데 전혀 물어주지 않음. 두발단속에 걸리면 머리 안 자른다고 하루에 500원씩 냄.</p>
6	산격중학교 (대구 북구)	<p>여름방학식날에 마 선생님이 애들 머리를 잘랐음.</p>
7	대구중학교 (대구 남구)	<p>성적하위권들을 구타하다시피 체벌함. 3학년만 머리검사해서 체벌. 학주가 발바닥을 때려서 발바닥이 아파서 집까지 걸어가지도 못함.</p>
8	동부중학교 (대구 수성구)	<p>등교시간에 두발단속. 머리카락이 길다고 등교시간에 학주가 학생들을 체벌해댐.</p>

9	대건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10	대륜고등학교 (대구 수성구)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아침에 기합을 받으며, 무지막지하게 패기도 하고 하루종일 수업 못 받게 하며 기합주기도 함. 4주에 1번 단속하는데, 몇몇 교사들은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검사. 머리 자른 지 2주도 안 됐는데 검사한다면서 애들 조금이라도 길면 잡아감. 휴대폰 보이면 압수하며,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참견하려고 함.
11	경명여자고등학교 (대구 북구)			두발검사해서 걸리는 사람은 이름을 적거나 가위로 자름. 지각해도 가위로 머리를 자름. 가위로 강제이발 후 학교 안 이발소로 가게 함.
12	송현여자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2006년 여름방학 보충수업 강제로 실시. 오전 보충수업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시행. 오후수업은 오후 6시까지. 평소 보충수업도 강제로 실시. 오후 3시정도까지는 정규수업이고, 7, 8, 9교시를 오후 6시까지 강제로 보충수업함.
13	조일공업고등학교 (대구 동구)			단어 못 외워서 36대를 맞고, 이틀 후에 또 못했다고 22대 + 싸대기를 맞음. 청소를 안 해서 빗자루로 머리를 맞고 싸대기를 맞음.
14	영남공업고등학교 (대구 수성구)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교사들이 학생들 뺨을 때리며 부모에 관한 욕설을 해댐.
15	영송여자고등학교 (대구 북구)			교문 앞에서 이발기계 들고 두발단속. 두발단속에 걸리면 그냥 기계로 밀어버림. 안복수 선생님이 학생들 물건을 막 들고 가서는 돈 받고 돌려준다. 야자는 거의 강제임.

부산지역 학교

1	지산고등학교 (부산 금정구)	두발단속에 걸리면 명찰 뺏음. 담임 김범일 교사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강한 체벌. 담임은 윗머리 2cm 정도 남고 다 미는 '해병대 머리' 요구.
2	부산동아공업고 등학교 (부산 사하구)	두발규제가 심하여 지옥이라고 느낄 정도임. 두발자유되고 싶다고 하면 전학을 권유.

울산지역 학교

1	천상중학교 (울산 울주군)	두발규제 무조건 기계로 밀어내야 함. 학주 이순현 교사가 교문에서 걸린 사람은 가위로 바로 자름. 잘린 후에 다시 검사 받음. 머리 기계 안 댔다고 담임 조인래 교사에게 학생들 앞에서 뺨을 5대 정도 맞음. 몇몇 교사들 상습적으로 뺨을 때림. 김운섭 한자 교사는 매주 쪽지시험을 쳐서 틀린 개수만큼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밀대로 체벌. 단소로 손톱을 찍기도 함. 6월 22일에는 회초리로 한자 교사에게 팔을 맞았음. 김동욱 체육 교사는 벌 설 때 학생들에게 장난쳤다면서 배를 대나무 같은 걸로 체벌. 체육복 하복을 안 입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림.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은 5대 넘게 체벌. 체육복 동복 입고 있으면 2~3대. 슬리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함.
2	대송중학교 (울산 동구)	머리에 관심을 가지면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서, 수행평가 태도점수에 두발상태가 들어감. 두발 걸리면 수행평가 태도점수를 깎음. 2006년 8월22일, 체육교사가 뒷머리가 교복에 닿는 사람이나 옆머리가 귀를 덮는 사람을 모두 뺨을 때림.
3	옥동중학교 (울산 남구)	2학년 학생인데, 담임선생님이 “어라 니 머리 좀 긴 거 같다.”라고 하면서 옆머리를 아프도록 잡아당김. 학생부에서도 두발에 대한 압박이 심함. 교사 중에 하나가, “어 쓰레기가 있네 어서 주워.”라고 해서 “제 거 아닌데요.”라고 했더니 신고 있던 굽이 높은 신발을 던져서 어깨에 맞음.
4	울산컴퓨터과학 고등학교 (울산 북구)	교복이 너무 끼서 교복 단추 좀 열었다고 징계까지 함. 교사들이 너무 엄격하게 용의복장을 검사함.

경상도 지역

1	함창중학교 (상주 함창읍)	<p>전교회장과 부회장이 두발규제 관련 토론회를 건의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 현재 규정도 학생의견 전혀 수렴하지 않음. 강제이발이 수시로 일어남. 제보자가 아는 강제이발 당한 숫자 2005년 초기에 아마 10여명정도? (2005년도전학년) 2005년 후기에 3~4명 강제이발 (2005년도2학년) 2006년 9월 20일 18명 강제이발(2006년도3학년) 저희학교 총학생수가 140명이고 3학년은 60명인데, 18명이 9월 20일에 잘렸음. 작년에 담임이 몇 명을 강제이발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도 강제이발을 하고 있음. 두발단속에 반발하면 교사의 말에 불응하는 것으로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p>
2	장산중학교 (경산)	<p>가정선 선생님이 뺨을 때리는 체벌을 함. 두발단속이 심함.</p>
3	문명고등학교 (경산)	<p>과거 두발규정이 3cm였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5cm로 바뀜. 그러나 실제 한 달에 한 번 단속할 때는 3cm도 안 되는 머리를 “왜 안 깎았어 이새끼”라고 하며 강제이발함. 밥을 조금 남겼다고 주먹으로 학생을 때림. 휴대폰 소지 금지. 책걸상 시설이 열악하고 스쿨버스가 유료.</p>
4	안동중학교 (안동)	<p>학생부장선생님은 개방적이고 학생들을 아주 잘 이해해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지만 체육교사들이 매주 월요일이면 머리 긴 학생들을 교문 옆에 세워놓고 자르라고 함. 안 자르면 강제이발하겠다고 함. 교칙엔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고 구레나룻은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으면 안되는데, 체육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함. 학생이 머리가 길다고 ‘볼’(싸대기, 꺾방망이)을 맞고 강제로 잘렸음. 학교 안에 이발관도 있음. 체벌도 심해서, 체육 선생님 한명은 한 때 권투선수였는데 애들이 모이라는 신호인 호루라기를 불고 난 다음에 축구나 농구를 몇 초라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애들을 불러서 정말 심하게 체벌. 처음엔 얼굴로 주먹을 몇 대 날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며, 넘어뜨린 다음엔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고 하고 다시 주먹을 날림.</p>

전라도 지역 학교

1	해성고등학교 (전주 완산구)	한 달에 한 번 두발검사하는데 걸리면 체벌함. 교내봉사활동도 시킴. 학교 안에 이발소 설치해서 요금 4천원에 학교 내에서 직접 자름.	
2	동암고등학교 (전주 완산구)	6월 초에 최영진 교사와 정국환 교사가 각각 수업시간에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여러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깎음. 수행평가를 깎으며 빨리 머리를 깎으라고 위협.	
3	전라고등학교	두발규정 자체는 앞머리 4cm로(전엔 1cm) 최근에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심함. 토끼뽕 같은 기합 줌. 다리에 피멍 들도록 체벌할 때도 있음.	
4	이리고등학교 (익산)	휴대폰 금지. 자율학습시간에 mp3 금지. 적발시 mp3는 영구압수. 휴대폰은 해지통지서를 가지고 와야 함. 두발규제는 옆머리 뒷머리 깨끗히 깎음. 귀두껍 허용. 학생들 반이 반삭발. 익산에 3개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중 이리고가 규제가 심한 편. 교사들은 기분에 따라 10대건 100대건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게 해놨지만 항의글을 올리면 교사들에게 찍힘.	
5	전북기계공고 (익산)	두발규정은 앞 머리 눈썹 안 당게, 옆머리 손가락을 귀에 대봐서 안 당게. 뒷머리 카라 안 당게, 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단속은 더 심하게 해서 완전 스포츠만 용인. 체벌을 하진 않지만 두발단속에 걸리면 벌점을 주고 벌점이 쌓이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퇴학. 머리 때문에 걸리면 15점 벌점을 주는데 120점 되면 퇴학처분. 두발규제 때문에 퇴학당한 학생이 많음. 재작년부터 두발건의를 하거나 두발자유하자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다 걸림.	
6	완도고등학교 (완도)	방학하기 전에 염색을 했는데 안 걸린 채 방학. 개학한 날 학교에 가는데 아침에 교문에서 두발단속. 학생부장이 머리를 보고 염색했다고 아침에 교무실로 불러서 욕설. 청소년특별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 가지고도 욕설을 함. 머리 자르고 다시 검게 해서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자 다시 불러서 혼냄. 결국 학교 보건실에서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짧게 자름.	

광주지역 학교

1	광주중앙중학교 (광주 북구)	두발단속이 심함. 작년에 영어교사가 강제이발. 음악교사는 구레나룻 완전 제거 요구. 학생들 몇 명이 거의 맨날 걸림.
2	광산중학교 (광주 광산구)	이번에 교장선생님과 학주 선생님이 바뀌면서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두발규정이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심하게 단속. 두발규정은 구레나룻은 귀 넘지 않게 옆머리 귀에 단지 않게 앞머리는 눈썹 넘지 않게 뒷머리 옷깃에 단지 않게. 그러나 두발단속을 할 때 앞머리 검사는 손으로 앞머리를 눌러서 앞머리가 눈썹에 닿으면 각서를 쓰고 자르게 함. 뒷머리를 검사할 땐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여 머리를 검사하며 옆머리를 자꾸 잡아당겨 귀에 닿으면 각서에 지장을 찍고 머리를 자르게 함. 각서를 안 쓰겠다고 하면 체벌하고 징계. 그리고 각서를 쓰고 안 잘라온 사람은 각서를 1번 더 쓰고 안 잘라오면 징계. 그 결과 학생들은 모두 스포츠나 반삭이 됨. 머리가 길어도 교사가 좋아하는 학생은 나무라지 않지만 학교 개학식때 머리가 길어서 한 번 찍혔던 아이들은 머리를 아무리 잘라도 조금만 길면 바로 각서를 쓰고 머리를 자르러 가야 함.
3	천곡중학교 (광주 광산구 월계동)	<p>개학 시기에 용의복장 검사를 실시한 뒤 거부하는 학생을 학생과로 불러가서 체벌함. 해당 학생들이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자 교장은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다”며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인권침해가 재차 고발될 경우 “IP 추적 등을 통해 적발해서 유급시켰다”고 학교전체 방송을 통해 학생들을 위협함.</p> <p>수업시간은 물론 쉬는시간까지 교사들이 교실에 찾아와 머리카락을 묶고 있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먹이고, 어떤 경우에는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가기도 함.</p> <p>9월 18일부터 일정점수 이하를 받은 학생은 보충수업을 강제로 실시함. 빠질 경우에는 벌점을 받고, 관계없는 수행평가 점수까지 감점되며 체벌까지 행해짐. 또한 수시로 시험 문제를 내서 틀린 개수만큼 때리기도 함.</p>

강원도 지역 학교

<p>대성고등학교 (원주)</p>	<p>교사 주관에 의한 자의적 두발단속. 두발단속 걸린 사람 3학년 학생부장이 학생부 안에서 몽둥이로 엉덩이 3대 때리는 등 체벌. 방식은 나무로 된 몽둥이로 풀스윙 . 교사가 보충학습 희망원에 강제로 동그라미 치게 함. 학교 게시판에 두발자유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적 있는데 삭제 당함. (신고학생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호소.)</p>
<p>거진중학교 (고성 거진읍)</p>	<p>두발단속에 걸린 학생을 방승으로 호명하여 머리를 안 자르면 “넌 왜 안 잘라. 넌 머리 잘라도 계속 와서 무릎 꿇고 있어.”라면서 쉬는 시간마다 와서 무릎 꿇고 있게 함. 머리를 안 자르자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함. 2005년 12월 학생들이 두발규제 놓고 투표를 했는데 선택지가 1번 더 짧게 2번 지금 규정대로 3번 두발자유[염색, 펌 등 제외하고]였음. 투표결과 학생들 90% 이상이 3번을 선택했으나 2006년에 오히려 더 규정이 짧아졌음. 현행 두발제한이 여자는 견갑골까지이며 그 길이를 초과하면 묶고 다니게 되어 있음. 남자는 그 전까지는 뒷머리는 5cm 정도 구레나룻은 귀뿌리까지 길러도 되었으나 지금은 뒷머리를 바리깡으로 올려 쳐야 하며 구레나룻을 없애도록 강화.</p>